



‘꿈의 택시 3055, 장 레옹 와이너리의 위대한 여정의 시작’

장 레옹 3055 샤도네이

JEAN LEON 3055 CHARDONNAY

지역	스페인 > 까탈루냐 > 페네데스		
포도품종	샤도네이		
알코올	13%	용량	750ml
시음 적정 온도	11~14℃		
테이스팅 노트	파인애플·망고 같은 열대과일 향에 화이트 플라워와 은은한 스파이스가 더해진, 신선하고 활기찬 스페인산 화이트 와인이다. 잘 익은 복숭아·시트러스·그린 애플 풍미와 균형 잡힌 산도가 어우러져 밝고 현대적인 개성을 보여주며, 미디엄 바디에 길고 우아한 피니시가 특징이다.		
페어링 TIP	흰 육류 / 익힌 해산물 / 붉은 살 생선 / 흰 살 생선 / 익힌 채소 / 부드러운 치즈 / 단단한 치즈 / 훈제/염장 음식 / 밀가루 음식 (피자, 파스타 제외)		



제품설명



장 레옹 3055 시리즈는 스페인 출신 이민자이자 장 레옹 와이너리 설립자 세페리노 카리온(Jean Leon)의 택시 번호 3055에서 비롯된 이름이다. 그가 뉴욕에서 택시 운전사로 시작해 할리우드의 레스토랑 사업가이자 스페인 와이너리 개척자가 되기까지의 모든 여정을 의미하며,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기 위해 미국에 첫 발을 내딛었던 그의 첫 도전 정신과 젊음을 반영한 혁신적이고 대담한 컬렉션이다.

장 레옹은 스페인인으로 19세 때 미국에 정착하여 택시 운전사를 시작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꿈꿨던 인물이다. 그는 할리우드에 정착하며 많은 경험들 끝에 마돈나, 제임스 딘 등 당시 유명 인사들로 북적인 할리우드의 유명 레스토랑 ‘라 스칼라’의 오너가 된다. 큰 성공을 이룬 그는 고향이었던 스페인 페네데스에 자신의 이름을 딴 장 레옹 와이너리를 설립하며 많은 혁신을 이루었다. 개척정신이 투철했던 그는 1963년 국제품종인 카베르네 소비뇽과 샤르도네를 처음으로 스페인에 도입하고, 단일 포도밭 와인을 의미하는 ‘비노 데 핀카’ 개념을 가져와 혁신을 이끌었다. 1996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그는 오랜 친구였던 Miguel Torres에게 자신의 와이너리를 부탁하였고, 장 레옹 와이너리가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랐다. 150여년 스페인 대표 와인회사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토레스 와이너리는 그의 유산을 이어받아 현재까지 장 레옹 와이너리를 토레스에 종속시키지 않고 하나의 독자적인 와이너리로 운영하고 있으며, 예술적인 라벨과 함께 독창성과 품격으로 세계적으로 높은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.

※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, 블랜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 ※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뒤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